

# 酉堂 尹鍾均의 삶과 詩 연구

## 황수정\*

### <차 례>

1. 머리말
2. 從遊와 唱和의 삶
3. 詩에 담아낸 眞情性
4. 맺음말

## 1. 머리말

尹鍾均(1861~1941)의 자는 泰卿이며, 호는 酉堂이다. 본관은 해남이다. 전남 순천 서면 당천 마을에서 태어났다. 3세에 아버지를 잃고 6세에 글방에 나갔다. 유당은 영리했으며 정독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열두 세 살 때 경사를 두루 읽고 공령문을 닦아 그 정묘함을 다했으나 과거장을 크게 시끄럽게 만든 나머지 결국 유사에게 불리함을 당하게 되자 탄식하며 말하기를 “세상이 이미 잘못되었는데 내가 벼슬길에 무슨 미련을 갖겠는가?” 하고, 드디어 詩學을 전공하며 사방으로 두루 유람을 하였다. 당시 매천 황현이 구례 만수동에서 살고 있었기에 찾아가서 추종하기도 하였다.<sup>1)</sup> 이후

\*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 公 諱鍾均 字泰卿 酉堂其號也 姓尹 系出海南 …… 公生于順天西面棠川里第 三歲失怙 六歲就塾 公素穎悟 不煩程督 十二遍講經史 業功令文 極其精妙 大噪場屋 竟不

매천과의 인연은 평생 그의 시적 성과와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매천은 유당과의 인연에 대하여 자신의 시에서, “내 벗 많은 시인들이 날날이 기린에 뿔이 났는데 중년에 또 그대를 얻어 한 봉황을 더한 듯 기쁘구려 (我友多詩人 個個麟出角 中歲又得君 喜添一鸞鷲)”라고 하여 그를 크게 인정하고 아꼈다. 또한 매천은 자신의 아들을 유당에게 맡겨 교육을 담당케 할 정도로 신임하였다.

일찍이 창강 김택영은 유당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유당과 서로 아는 지가 30년에 가까운데 그의 시집에서 빠져서 끝내 한 마디도 안하는 것이 웬것는가? 유당은 허묘원과 더불어 황매천 이영재 사이에 같이 유학하였으며 한때 호남에서 두 사람의 시를 추천하면 매천의 다음은 간다고 했다.”<sup>2)</sup> 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렇듯 유당은 당대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문인들과 교유 속에서 자신의 시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유당은 과거로서 일신을 일으키고 가문을 빛내고자 하는 바람을 간직했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세상의 불리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불운한 인물이다. 비록 청운의 꿈은 단절되었으나, 당대 여러 명사들과 교유하고 시적 교감을 나눔으로써 당대의 삶과 시정을 노래한 시인이다.

본고에서는 변혁기였던 19세기 말~20세기 초 왕성하게 作詩<sup>3)</sup> 하였던 유당 윤종균의 삶을 조명하고 그의 詩에 담긴 眞情性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당대 지역 한시인에 대한 부각인 동시에 구한말 우리 한문학 성과에 보다 풍성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利於有司 歎曰世既非耳 何役志於仕進耶 遂專攻詩學 遍遊四方 時黃梅泉玆 新寓於求禮萬壽洞 則往從之。(尹承浩, 「叙傳」, 『酉堂詩集』, 명문사, 1968)

2) 吾與酉堂 相知近三十年 於其詩闕然 終無一言 可乎 酉堂 與許卯園 同游黃梅泉 李寧齋之間 一時 湖南之論 推二人詩 爲梅泉之次。(金澤榮, 「跋」, 『酉堂詩集』)

3) 만여 수에 가까운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유당시집』으로 엮인 것은 800수에 이른다. 이는 유당이 작고한 뒤 1943년 李建芳이 選詩하여 제자 金鍾弼이 발간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카 尹轍浩가 1968년 순천의 明文社에서 발간하였다.

이러한 지역 한문학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학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선조들의 폭넓은 문학 정신을 발굴하여 계승해 나아가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로써 문학적 교류를 통한 시대정신과 정서의 소통으로서 당대 한시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從遊와 唱和의 삶

유당이 태어난 순천시(당시 승주군) 서면 운평리 棠川마을은 1360년 경 김해김씨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마을터가 말(斗)터라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타지방으로 이주하여 규모가 작은<sup>4)</sup> 마을이었다. 여기에 증조부인 6대 德臣이 寓居하기 시작하면서 순천에 해남윤씨가 살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周殷이고 아버지는 奎五이며, 어머니는 옥천 趙씨로 鎭斗의 딸이다. 유당은 젊어서 공령문을 잘했고 박식하며 기억력도 좋아서 시류에 막히지 않았다고 한다. 주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벼슬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시대의 변천으로 인해 과거제가 폐지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매천의 동생 瑗의 다음 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유당은 순천에서 낳고 자랐으며 매우 총명하였다. 그의 형 경민의 정성에 힘입어 사방으로 다니면서 종사를 하여 과시를 많이 지었으며,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면서 정리해서 돌아왔다. 30세에 우리 선형을 종사하여 율시를 배웠는데 늘 칭찬을 들었다.<sup>5)</sup>

이처럼 유당은 시학에 전념하였다. 그러면서 당대 문인들과 교유의 삶을

있게 되는 것이다. 그의 從子인 승호는 그의 시적 삶에 대해 이르길, “지은 시가 무려 만여 수로 매천과 난곡이 뽑은 것만도 몇 천편은 된다. 공은 일생 정력을 오로지 여기에 기울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수습을 못하고 그것이 장차 연기처럼 그을리고 안개처럼 막혀 바람이나 꿈팡이 영향으로 세상에서 사라질까싶다.”<sup>6)</sup>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유당은 오로지 詩作과 교류를 통해 시대와 소통하고 자신의 고장을 노래했으며, 당대인들과의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매천이 구례 만수동 구안실 밑에 一笠亭<sup>7)</sup>을 세울 때(1892년) 유당이 찾아오면서 교류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매천의 교유인물은 동시에 유당과 교유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당시 구례 문단의 인물들과 당대 중심에 있었던 중앙 문단의 이견창, 김택영 등을 비롯한 인물들과 詩交를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유당 나름대로 시로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시의 명망을 이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택영은 『유당시집』 발문에 이르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이름 아래 헛된 선비 없다고 했다. 이름이 이미 이와 같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실증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써 쓸 뿐이다.”<sup>8)</sup>고 하였다. 이로써 창강은 유당의 시풍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발문 서두에서는 때로는 選詩에 있어 지나치게 깎아내림도 없지 않았지만, 이는 창강 자신의 詩病에 의한 것이지 유당 작품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전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당은 평생을 시업을 통한 삶으로 평가받으며, 세상과 맞닿

4) 昇州鄕里誌編纂委員會, 『昇州鄕里誌』, 광주일보출판국, 1986, 840쪽 참조.

5) 酉堂子 生長順天 頗有聰明 賴其兄敬民之誠 從師四方 多作科詩 旋以時異事變 渡瀾而歸 三十從吾先兄 學律詩 每見稱譽. (黃瑗, 『跋』, 『酉堂詩集』)

6) 所著詩 無慮萬餘首 而梅泉 蘭谷所選 幾千餘篇 公之一生精力 專傾于茲 而及今不收 拾 其將烟鎖霧 風微影響 泯湮於世. (尹承浩, 『叙傳』, 『酉堂詩集』)

7) 일립정은 매천이 구안실 바로 근처에 세운 샷갓모양의 작은 정자로 구례 만수동 상만마을에 있었다. 이곳에서 학동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밑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휴식처로도 유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2001년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던 「三乎亭上樑文」에서 梅泉遺址임을 드러내는 글을 읽을 수 있었다. 황수정, 『매천 황현 전기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2, 19쪽 참조.

8) 古語曰 名下無虛士 名既如是 則必有如是之實 余以是書之而已. (金澤榮, 『跋』, 『酉堂詩集』)

아 있었다. 이는 당시 구례에서 활동하였던 鄭琦가 쓴 서문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구례에 들어와 살면서 이 고을의 선배인 윤후당 옹을 알았다. 옹은 재주가 뛰어나고 호탕한 기운을 지녔으며 젊어서부터 시율을 익혀 말을 내놓으면 문득 사람을 놀라게 한다. 이미 독서로써 견문을 넓혔으며 겸산, 매천, 소천 등 여러 군자들을 추종하면서 서로 함께 시를 주고받기도 했다. 같고 닦고 바로잡을 때 도끼를 내려뜨리듯 하며, 서로 험뜯고 서로 따질 때면 그 정밀함을 찾았다. 무릇 올라가 멀리 바라보거나 잔치에서 술을 마시며 손님을 접대하거나 현실에 대한 느낌이나 옛것을 위로하거나 어떤 물건을 잡거나 사람을 생각할 즈음에도 화창하고 유쾌하며 강개하거나 원모할 때도 그런대로 불평이 없다. 마음속에 부딪침이 있을라치면 시가 바로 나올 그 무렵에는 항상 1,000수라도 얻어내었다.<sup>9)</sup>

위 글을 보면 먼저, 유당의 시율에 대한 뛰어남과 폭넓은 식견을 꼽고 있다. 이는 그의 부단한 노력과 비범함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다. 또한 유당이 당시 여러 군자들과 종유하며 창화하였던 바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순천 지역 여러 문사와의 교류로 유당이 詩社<sup>10)</sup>를 결성하여 종유하였던 문인들이 있다. 그리고 구례 문인<sup>11)</sup>들과의 시교로서 관계를 유지하며 창화하였다. 또

한 이를 바탕으로 당대 저명한 중앙 명사<sup>12)</sup>들과의 교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듯 왕성한 교류와 작시에의 열정은 자신의 진솔한 정서로 교류의 정으로 형상화하였고, 고장에 대한 애정과 관심 등을 풍물시에 담아 자긍심으로 이끌었던 것 같다. 특히 이에 대한 시에는 유당의 남다른 기록 정신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작품 수를 이루는 열정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유당의 삶을 인간과의 관계 중심으로 조명하여 그의 시인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당대 문인들의 활동을 함께 가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당과 교류한 인물 중에서도 특히 그의 삶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었던 梅泉 黃玑, 寧齋 李建昌, 兼山 白樂倫과 유당의 제자 중 김종필 관련 시를 통해 조망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유당에게 있어 그의 삶과 詩業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매천 황현과의 교류를 통한 삶의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매천과의 첫 인연은 유당이 구례 만수동으로 매천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1890년 유당이 30세가 되던 해부터는 매천의 아들인 암현을 맡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평생의 詩交를 이루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門人으로서 그리고 交友로서 지속할 수 있었다.

五噫歌斷返鄉廬 오희가가 멈춰 고향 오두막 돌아오니  
環堵蕭然但貯書 둘러있던 있던 담장은 쓸쓸하고 책만 쌓였네.  
志遠何曾忘世界 뜻이 원대한데 어찌 세상사를 잊을 것인가

9) 余寓求禮 識鄉之先進 西堂尹翁 翁負雋才逸氣 自少攻詩律 出語輒驚人 既又讀書廣聞見 從兼山 梅泉 小川 諸君子 相與唱和 磨礪引繩落斧 互誓交訟 以求其精工 於凡登臨眺矚 宴飲送迎 感時 吊古 攬物懷人之際 酣暢愉適 慷慨怨慕 無聊不平 有觸于中 壹於詩發之歲 常得千篇。(鄭琦, 「序」, 『西堂詩集』)

10) 유당은 1913년 남파 김효찬, 순천군수 이병휘 등과 함께 순천 燕子樓에서 蘭菊社를 결성하고 사회활동을 하였다. 이후 순천지역 문인 및 관료들과 더불어 창수하였다. 현재 강남난곡음사와 승평음사 등은 모두 이에 시초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류연석, 『順天儒林의 詩社活動에 關한 研究』(『고시가연구』 8집, 2001)가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차후로 미룬다.

11) 유당의 시에 주로 등장한 구례 문인들은, 매천 황현, 석전 황원, 겸산 백낙운, 이산 유제양, 남파 성혜영, 소금 왕사천, 소천 왕사찬, 지촌 권봉수, 석하 권홍수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正煥, 『梅泉詩派 研究』(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이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유당은 1915년 歲暮懷人詩 五十五絶을 통해 교감의 정을 노래하고, 각각의 특징을 형상화하였다.

12) 중앙 명사들은 영재 이견창, 창강 김택영, 난곡 이견방, 무정 정만조 등과의 교류가 있다. 이들은 주로 매천과의 인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황수정, 『梅泉 黃玑義 詩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314~318쪽을 참고할 것.

家貧猶不待人踈 집은 가난하지만 사람대접 소홀하지 않네.  
 談鋒快似秦青劍 筆鋒의 시원함은 秦靑의 칼날 닮았고  
 詩派深於鄭伯渠 詩의 갈래는 鄭伯의 도랑보다 깊구나.  
 四海諸公論出處 온 세상 여러분들이 출처를 논하는데  
 名山那得鹿爲車 명산 어디에서 鹿車를 만들던가?  
 〈贈梅泉〉<sup>13)</sup>

이 시는 1903년(43세)에 쓴 것이다. 수련에서는 매천의 五車書와 함께 하는 삶을 그렸다. 매천이 구례 월곡리에 살 당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벼슬에의 꿈을 접고 세상에 우거하며, 많은 책들을 들여놓고 탐독하였던 바는 유당 자신과도 상통하는 면이 보인다. 함련에서는 나라에 대해 근심하는 바가 커서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나, 일찍이 벼슬에의 집착을 버려 세상의 물욕과 거리를 두었던 바를 그리고 있다. 경련에서는 세상을 보는 안목의 날카로움을 드러내며, 시학에 있어 출중하였던 바를 밝히고 있다. 이로써 미련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출처를 논하는데 어찌 깊은 산속에서 자연을 벗하며 살고 있는가를 반문하고 있다. 이는 지식인으로서 당대의 질곡의 세파를 감내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멀리서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당대인들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신의 시대에 능력과 포부를 발휘할 수 없었던 지식인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유당은 매천과 더불어 중앙 문인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하였다. 영재 이진창을 방문해서 보성의 배소를 둘러보고 唱酬하였고, 영재가 죽자 매천과 강화로 가서 조문하기도 했다. 때문에 서울에 머물며 난곡 이진방, 무정 정만조 등과 연일 唱討하며 여러 번 獎贊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向來進退關時運 그 동안의 진퇴는 시운과 관계된 것이지만  
 身後文章動國華 죽은 뒤에 문장은 곧 나라의 꽃이 되었네.  
 莫恨韶光今已盡 밝은 빛이 이제 사라졌다고 한스러워 마소

13) 윤종균, 〈贈梅泉〉, 『酉堂詩集』 권一, 명문사, 1968, 16쪽.

滿庭紅葯放新花 뜰 가득 붉은 들풀에서 새 꽃들이 피어나네.  
 〈己亥四月 與梅泉 至沙谷 追憶寧齋先生 酬李畊齋 建昇 李蘭谷 建芳〉<sup>14)</sup>

이 시는 영재 사후 6년 후인, 1899년(39세) 4월에 매천과 사곡<sup>15)</sup>에 가서 영재를 추억하며 경재 이진승, 난곡 이진방과 창수한 것이다. 유당은 이미 1893년(33세) 설달 보성에 귀양살이 하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이를 1898년(38세) 戊戌稿에 〈哭李學士 寧齋 建昌〉<sup>16)</sup>으로 담은 바 있다. 미련을 보면, “백옥루가 만들어져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허공에 까마득히 구름 끊겨 한가롭네(白玉樓成人不見 虛空緲緲斷雲間).”라고 하여 생전에 문인으로서 출중하였던 바를 돌이키며, 허공 속에 끊긴 구름으로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더구나 강화 사곡까지 찾아가서 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은 시를 창수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종유하고 마음으로 늘 창화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유당은 영재의 진퇴가 시운에 달려있었음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사후에 더욱 문장에 대한 평가가 빛날 것을 예감하였다. 사후에도 그를 기리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봄날의 별이 스러지는 것을 한스러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붉은 들풀 속에서도 새 꽃이 여전히 피어남을 그리고 있다. 이는 영재에 대한 추앙과 연모를 담은 것이다. 이처럼 변함없는 교류의 정은 유당의 삶에 기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겸산 백낙윤이다. 유당은 1895년(35세)에 겸산이 순천 부사로 부임하면서 인연을 맺게

14) 윤종균, “己亥四月 與梅泉 至沙谷 追憶寧齋先生 酬李畊齋 建昇 李蘭谷 建芳”, 위의 책, 4쪽.

15) 沙谷에는 영재의 생가가 있다. 이곳에서는 ‘明美堂’이라고 쓴 매천의 친필을 볼 수 있다. 유당 또한 매천과 더불어 강화도에 위치한 사곡까지 찾아가는 일은 당시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토록 사후 수년이 흐른 뒤에도 생전의 교감을 그리워하며 추모하였던 바가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16) 윤종균, “哭李學士 寧齋 建昌”, 위의 책, 4쪽.

되었다. 검산은 이때 유당을 한번 보고 평생을 가까이 하였다. 이듬해에 검산이 남원 관찰사로 승진했는데, 유당을 남원主事로 밝혔으나 여러 번 사양하다가 “내 이제 어머니가 늙고 집안이 가난하니 녹을 받는 벼슬살이를 어찌 꺼리랴(吾今親老家貧祿仕何妨).”<sup>17)</sup>고 말하며 힘써 그를 따랐다. 남원부에서 2년 만에 각자 還山하였지만, 뒤에 검산을 찾아가서 공주 유구에 서 몇 해 동안 서로 唱酬해 시를 더욱 공부했다. 이처럼 검산은 유당에게 벼슬살이의 문을 열어주었으며, 그의 시재를 인정하고 가까이 두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여기에 벼슬을 받게 되어 노모에게 효도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노래한 시가 있다.

風潮何處起 풍조란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가  
郡國一時驚 온 나라 고을까지 일시에 놀랐네.  
太廟更絃日 태묘에서 새로운 발표가 있는 날  
萱幃捧檄情 격문을 받은 어머니의 심정 어떠했겠는가  
畊桑眞細事 뽕밭을 가는 일은 참으로 작은 일이지만  
關柝亦微榮 관문을 여는 것 역시 조그마한 영화라네.  
策馬龍城去 말을 채찍질해서 용성으로 달려가니  
鶉江徹底清 鶉江이 저 밑까지 맑기만 하구나.  
〈乙未秋 朝廷 設南原府 陞昇平府使 白兼山 樂倫 爲觀察使 白公便道之官  
辟 余爲主事 老母在堂 竊有捧檄之喜 遂起就職〉<sup>18)</sup>

이 시는 유당이 1895년(35세)에 남원부주사의 벼슬을 받게 되었을 때, 기쁨을 그리고 있다. 즉 “을미년 가을 조정에서 남원부를 설치하고 승평부사를 승격시키고 검산 백낙윤이 관찰사가 되었다. 백공이 문득 벼슬자리를 제시하여 내가 주사가 되었다. 집에 계신 노모께서 격문을 받은 기쁨이 있

으시겠다. 드디어 벼슬길에 나서면서”라고 밝히고 있다. 아들의 뛰어난으로 인해 일찌감치 벼슬로서 기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검산의 도움으로 관리의 길에 들어서게 되자 부모로서 감격은 지대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유당은 부모의 뜻을 받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순리대로 이행하였다. 여기에는 자신이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였던 마음이 컸을 것이다. 시를 살펴보면, 수련은 예기치도 않았던 기회를 잡게 되었던 설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풍조와 군국의 놀람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쁨은 곧 환위, 즉 어머니의 감격으로 이어져 봉격한 것을 함련에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경련에서는 그동안의 지나온 시절을 빠르게 그리고 있다. 즉 벼슬에 이르기까지 마음 고충이 담겨 있다. 그리고 비록 작은 영화지만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끝으로 미련에서는 말을 몰아 용성인 남원으로 가는 길에 鶉子江,<sup>19)</sup> 즉 섬진강이 맑게 빛나고 있음을 그렸다. 여기에는 벼슬로 나아가는 초심자의 순수함을 그리는 시인의 비유적 표현이 돋보인다. 이후에도 유당은 검산에 대한 애뜻함<sup>20)</sup>을 수시로 밝히고 있어 평생 종유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유당은 1908년(48세)에 어머니 상을 당해 喪葬의 예를 따랐으며, 3년간 고기와 술을 먹지 않았다. 이후 복을 벗고 나서야 구례로 가서 여러 사우들과 書檠에 관여하였다.<sup>21)</sup> 그런데 주사 金澤均<sup>22)</sup>이 유당의 명성을 듣고 자식과 조카들의 교육을 부탁하였다. 종필이 바로 김주사의 아들이다. 유당

17) 윤승호, 『서전』, 위의 책.

18) 윤종균, “乙未秋 朝廷 設南原府 陞昇平府使 白兼山 樂倫 爲觀察使 白公便道之官 辟 余爲主事 老母在堂 竊有捧檄之喜 遂起就職”, 위의 책, 2쪽.

19) 순자강은 적성강에서 곡성의 압록까지를 이르는 말로 섬진강의 본류이다.

20) 유당이 검산에 대한 애뜻함을 읊은 시가 많으나 그 중에서도 〈憶兼山〉, 〈秋夜 憶兼山丈人 二首〉가 특히 이에 대한 풍부한 정조를 담고 있다.

21) 『유당시집』에는 1907년까지 작품이 있고, 다음은 1910년의 작품이 기록되었다.

22) 김택균 : 자가 士振이고 호는 菊圃이다. 1904년 궁내부주사 벼슬을 받았다. 덕덕해서 벼풀기를 좋아하여 이름이 고장과 나라에 퍼졌다. 『구례군지』 상, 964면 참조.

은 71세에 눈병을 얻어서 남에게 의지해 먹고 남의 부축을 받아서 다니며 자취가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종필이 세 칸의 집을 지어 주면서 ‘水竹軒<sup>23)</sup>이라는 扁額을 걸고, 스승의 만년을 보살폈다. 유당은 이곳에서 1941년(81세) 음력 6월 1일에 숨을 거두었다. 이처럼 만년까지 보살핌을 받았던 제자 종필이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스승으로서의 마음을 담은 시가 있다.

聞道寒衣前燭裁	도를 들으러 젊은이가 앞길을 결정했으니
東京文物使人催	동경의 문물은 사람을 눈뜨게 해준다네.
江村木落秋聲碎	강마을에 낙엽 지니 가을소리 부석거리고
海國雲消曙色開	해동국에 구름 걷히니 새벽빛이 열리네.
白首終無干世志	백수 노인이야 끝내 세상 간섭한 뜻 없지만
靑燈別有濟時才	푸른 등 젊은이야 세상 구제할 재주 지니겠지.
勸君深副庭闈望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의 바람에 깊이 부응하여
直上黃金駿馬臺	곧 바로 황금으로 장식한 준마대에 오르기를.

〈送金生鍾弼 赴日東遊學〉<sup>24)</sup>

이 시를 보면 변화하는 시대를 예감하고 있다. 따라서 제자에게 그것에 부응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유당 자신은 비록 시세의 변천에 대응하지 못하고 절망하였지만, 제자는 변화의 조짐을 간파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적응을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수련에서 변화의 진폭을 그려낸 것이다. 새로운 문물에 대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담았다. 함련에서는 강한 대우구조를 이루며 대비를 형성하고 있다. 즉 江村과 海國, 秋聲과 曙色은 각각 우리나라와

일본의 모습으로 담고 있다. 이는 패배의식이 아닌 시대의 조류를 담고자 한 것이다. 갑작스럽고 자연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변화는 충격과 불만과 몸부림이었지만, 그러한 변화를 주도했던 이들에게는 능동적으로 변화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자각이 함련에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경련에서 새로운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인지하기 위한 도일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로써 스승으로서 제자의 靑出於藍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원하는 것을 갖출 것을 응원해 주고 있다. 제자에 대한 스승의 열린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유당 자신은 지난 세월을 돌이키며, 쓸쓸하게 자신을 돌이키는 시를 남기고 있다.

風雨催秋急	비바람이 다급히 가을을 재촉하는데
頽波苦未澄	무너지는 파도가 괴롭게도 맑지가 않네.
壯心餘白髮	썩썩한 마음이야 백발에게도 남아있지만
長物但靑燈	물을 기르는 데는 청등 같은 젊은이라네.
舊業慚淮橋	구업은 회수의 풀나무를 부끄럽게 하고
新詩費剡藤	새로운 시는 섬나라 등나무를 허비하네.
年來情轉劇	몇 해 전부터 게으름이 갈수록 심해
隨處坐如癡	가는 곳마다 마치 영킨 듯 앉아있네.

〈秋日書感 二首〉 중 1首<sup>25)</sup>

이 시는 1925년(64세)에 쓴 것으로,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과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급격히 변해가는 세상과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켜보아야 하는 지식인의 심경이 드러나 있다.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한)문학의 흐름 또한 큰 변화의 폭을 겪게 된다.<sup>26)</sup>

23) 윤종균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손자 주홍(막내아들인 鳳浩의 子)씨의 증언에 의하면, 방2칸, 부엌 1칸의 집에서 자신의 대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왼쪽 큰방에 할아버지(유당)께서 기거하셨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버지(鳳浩)께서 약방을 하시며 지내셨다고 한다. 현재 수죽현은 구례 광의면 지천리에 사람이 살지 않고 폐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24) 윤종균, 〈送金生鍾弼 赴日東遊學〉, 『유당시집』 권二, 52쪽.

25) 윤종균, 〈秋日書感 二首〉 중 1首, 『유당시집』 권三, 27쪽.

26) 여기에는 이종목, 『일제 강점기 한문학 연구 성과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를 보면 한국한문학 연구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1920년 이전까지는 ‘詞藻’<sup>27)</sup>란을 두어 한시를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새로운 문물에 적극적이었던 신세대 지식인들은 한시와 한문에 대한 관심을 줄이거나, 외면하였다. 당시 이러한 현상은 많은 한문학자들의 존립을 위협하여 실 자리를 잃게 하였다. 이 시를 보면,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한 회한이라기보다는 질곡의 역사 속에서 감내해야 했던 기존 지식인의 고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舊業慚淮橋’라고 하여 환경에 따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회수의 굴(南橋北枳)을 언급하여 부끄러움을 말하였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憂患意識은 지식인으로서 예민하게 감지하고 대처해야 할 책임의식의 소산일 것이다.

이처럼 유당의 삶은 격변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사회적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회한과 고뇌를 안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시적 역량으로 인간관계에 있어 풍부한 자산을 이루어서 당대 문학인들과 詩情으로 풍유하고 창화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 3. 詩에 담아낸 眞情性

일찍이 김택영은 유당의 시를 妍媸과 工拙이라 평한 바 있다. 이는 고우면서도 밋고, 공교로우면서도 질박한 시세계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즉 시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뜻인데, 이는 유당이 다작의 작품을 생산하면서 획득된 시적 기교에서 얻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본장에서는 유당이 시에 담아낸 진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시인으로서 담고자 한 것은 무엇이며, 그

27) 이에 대한 예를 들면, 1910년 경남일보는 10월 11일자 ‘詞藻’란에 매천 황현의 절명시를 게재하였다. 당시 경남일보는 이 일로 신문이 압수당하고 10여 일간 정간되기도 하였다.

시대 시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紅袖飄零尙有樓	붉은 소매 나부끼며 아직 누각에 있으니
遊人想見古徐州	타향의 나그네는 옛 서주를 생각하나보네.
孤鶯落月楊花塢	버들 꽃 핀 언덕 달빛 아래 외로운 피꼬리 울고
旅鴈西風橋柚州	굴 유자 고을에 서풍 따라온 기러기 날아가네.
暮雨朝雲終是夢	저녁이면 비 아침이면 구름이 끝내 꿈이런가
嬌歌急管至今愁	아리따운 기생 노랫소리가 여전히 수심에 젖네.
誰知好好千行淚	호호의 천 줄기 눈물을 누가 알거나
添作橋南碧玉流	눈물 보탬 다리 남쪽 아래 맑은 물만 흐르네.

〈燕子樓 懷古〉<sup>28)</sup>

이 시는 1905년(44세)에 쓴 것으로, 순천시 조곡동 죽도봉 공원 안에 있는 연자루<sup>29)</sup>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찍이 고려시대 孫億(1214~1259)이 승평부사로 부임하여, ‘好好’라는 기생과 사랑을 나누다가 관직이 영전되어 순천을 떠났고, 그 후에 다시 찾아와 보니 호호는 이미 늙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유당도 이 시에 부기하기를 “태수 손억이 순천부 기생 호호와 같이 놀다(太守孫億與府妓好同遊).”라고 적고 있다. 『순천시사』<sup>30)</sup>에 따르면, 본래 연자루 밑으로 맑은 시냇물이 낙화수처럼 흘러 그 아름다움이 중국 서주에 있는 연자루와 비견되어, 많은 명인들이 연자루에 대한 시를 남겨 여러 수의 시가 전하고 있다.<sup>31)</sup> 이 시에서 유당은 ‘紅袖’, ‘孤鶯’ 그리고 피리소리 등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동시에 잘 아우르고 있어서 시에 있어 더욱 생동감을 주고 있다. 또한 연자루이야기와

28) 윤종균, 〈燕子樓 懷古〉, 『유당시집』 권一, 31쪽.

29) 현재의 모양은 2층의 팔작기와지붕에 T자형 건물로 정면 6칸, 측면 2칸의 대청형 구조로 되어 있다.

30) 전남 순천시청 홈페이지내 등재되어 있다.

31) 실제로 『승평지』에는 문인을 비롯해서 군수, 태수, 유배객, 유람객 등이 연자루에 대한 정회를 읊은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연자루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잘 교차하여 슬픔의 미로 승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지상의 送人<sup>32)</sup>을 연상시키는 ‘添作橋南碧玉流’라고 미련 하구에 그리고 있어 호호의 천 줄기 눈물이 碧玉流에 보태졌을 것이라고 슬픔을 배가시키는 미적 감각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시인의 눈을 통해 그려진 그림움과 서글픔은 바로 인간의 거짓 없는 진실한 감정에 접근시키는 힘이 있다. 독자의 맑고 깨끗한 정서를 자아낸다.

羽客歸何處 우객은 어디로 돌아갔는가  
 登臨思渺然 올라와보니 생각이 아득하네.  
 白雲猶滿地 흰 구름은 땅에 가득한 것 같고  
 江節已朝天 강굽이는 이미 하늘에 맞닿았네.  
 笛斷梅橋日 첫대소리 멈춘 매산 다리에 햇빛 들고  
 江涵竹島烟 강물 젖은 죽도봉 노을이 자욱하네.  
 往來成幻夢 오가다보면 환상의 꿈을 꾸었던가  
 鐘梵護金仙 종범각 종소리가 부처를 보호하네.  
 (題喚仙亭)<sup>33)</sup>

환선정은 1543(중종 38)년 부사로 부임한 沈通原이 송광사의 임경당과 함께 건립한 것으로 무예를 시험하기 위한 講武亭이었던 것 같다. 그 후 몇 차례 중건을 계속하였으나, 1910년 이후 송광사와 선암사의 승려들이 운번으로 선·교종의 포교소로 이용해오다가 1962년 8월 수재 때 유실되었다. 현재는 편액만 순천 죽도봉 밑 射亭에 보관되어 있다. 이러한 환선정에 대해서도 많은 명인들이 시를 남겼고, 그 중에서도 지봉 이수광의 <환선정십영>에서는 환선정이 갖춘 미적 소재를 충분히 그려내고 있다. 즉 뛰어난 경관과 흥겨운 풍류 속에 신선을 불러 자신도 마치 신선인 듯 노래한 것으로 이곳의 열 가지 경관을 초승달, 저녁햇살, 매화향기, 짙은 녹음, 봉

화불, 새벽종소리, 고기잡이불, 밥 짓는 연기, 소나기, 눈이 갠 등의 순서로 노래하였다.<sup>34)</sup> 유당의 눈에 비친 환선정은 많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난 오롯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즉 우객을 자처하며 머물던 객들이 떠난 자리에 홀로 오르면서 사색에 잠기고 있다. 신선이 방금 있었던 듯 흰 구름 가득한 것 같고, 피리소리 끊긴 날에도 죽도봉엔 안개가 둘러싸여 있음을 그렸다. 많은 객들은 이곳에서 치기어린 꿈을 꾸지만, 환선정에서 들리는 범종소리는 늘 한결같음을 그리고 있다. 이는 ‘羽客’, ‘白雲’, ‘笛斷’, ‘幻夢’이라는 환선정의 가변성을 통해 투시한 ‘江節’, ‘江涵’, ‘鐘梵’으로 환선정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晚白孤城下 외로운 성곽 아래로 늦게 정박하니  
 楓靑玉露滋 단풍은 푸르고 옥 같은 이슬이 맺히네.  
 漢川流不盡 한수 냇물은 끝없이 흘러가는데  
 石柱立多時 돌 주석만 한 없이 서있네.  
 疊古秋雲薄 오래된 성곽에 가을 구름은 얇고  
 江鳴夜月悲 강이 우는 밤에 달빛도 슬프네.  
 可憐山上磧 가련하다. 산위의 돌무더기가  
 摠是七忠碑 모두 일곱 충신의 비석이라네.  
 (石柱城)<sup>35)</sup>

이 시는 1916년(55세)에 쓴 것으로 석주성의 지난 역사를 담고 있다. 부기하기를, “한수내 서쪽 기슭에 있다. 곧 이정익, 한호성, 양응록, 고정철, 오종의 초혼장이다(在漢水川之西崖有五墳 卽李廷翼 韓好誠 梁應祿 高貞喆 吳踪 招魂葬也).”라고 하였다. 구례에는 석주철의각이 있다. 이는 정유재란(1597년) 때 구례사람인 王得仁 부자와 위의 5사람이 왜적과 항전하다가

32)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33) 윤종균, <題喚仙亭>, 앞의 책, 42쪽.

34) 환선정십영 : 竹島新月, 松村返照, 梅橋暗香, 栗圃濃綠, 煙臺夕烽, 山寺晨鍾, 東川漁火, 西郊炊煙, 北嶺晴雪  
 35) 윤종균, <石柱城>, 『유당시집』 권二, 25쪽.



순수한 것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한 이들의 장렬한 죽음은 후대 시인들의 悲歌로 전해지곤 하였다.<sup>36)</sup> 유당의 시에서는 더욱 슬픈 정조가 담겨 있다. 이는 시인의 감정이 왜곡됨 없이 진솔하게 묻어난다. 공간적으로는 孤城에, 시간적으로는 저녁 무렵, 계절적으로는 가을이다. 이는 점차적으로 의미의 확대를 이루며, 미적 승화를 이룬다. 특히, 玉露滋, 夜月悲 등은 시에 있어 깊은 정조를 띠게 한다. 역사 속에 말없이 스러져버린 일곱 충신에 대한 애뜻한 시인의 발상은 ‘疊古秋雲薄’라 하여 세월의 무게만큼 더욱 깊게 쌓인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진정성을 그려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鴨綠津頭二水會	암록나루 머리에서 두 물이 만나
明沙細草森如繪	흰모래 잔풀들이 뾰뾰한 것이 그림 같네.
一曲東流瀑水驛	한 굽이 동으로 흘러 진수역이 되고
帆檣出沒汀樹碧	돛단배가 출몰하는 물가 나무는 푸르네.
二曲東流文江深	두 굽이 동으로 흘러 문강은 깊고
沙村竹月橫千尋	사촌의 대밭에 달빛이 천 길을 비치면
銀魚盈尺帶沉香	한 자 넘는 은어는 바구니 속에서 향기로운데
記得當年進頭網	그 당시 그물 던진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네.
三曲東流漢水川	세 굽이 동으로 흘러 한수천이 되고
旗竿簇立魚鹽船	고깃배 소금 배에 기둥이 우뚝 솟았네.
四曲東流蟾津濶	네 굽이 동으로 흘러 섬진강이 드넓은데
水鏡角罷霜葉脫	수진의 피리소리 그치고 서리 맞은 잎이 지네.
千里蓴美四腮魚	천리가 순채이고 사방이 시어인데
秋來風味更何如	가을이 오면 풍미가 또 어떠하리?
五曲東流斗峙橫	다섯 굽이 동으로 흘러 두치가 흘러가고
蚪鼇一轉蟾江名	두추가 한 번 변해 섬진강이 되었네.

〈蟾津江〉<sup>37)</sup>

이 시는 섬진강의 아름다움과 이름에 대한 내력을 시화하였다. 또한 섬진강의 근원에 부기하기를, “그[섬진강] 근원이 둘이다. 하나는 진안의 마이산에서 시작하고, 하나는 장흥의 웅치에서 시작하여 곡성의 압록에서 만나서 동류하다가 진수역이 되고, 또 동류하며 구례의 남쪽에서 문강이 되고 또 동류하여 한수천이 되며 또 동류하여 광양의 북쪽 섬진진을 지나고, 또 동류하여 하동의 두치강이 된다. 두치는 우리나라 방언에 蟾을 두추라고 한다. 또 두축이라 부른다. 두치강이라 하는 것은 곧 두추강이 변한 소리다.”<sup>38)</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시인으로서의 정서를 표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향토애적인 발상으로 고장 풍토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전달에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를 통해서 구례 압록 나루에서 광양 하동에 이르기까지 섬진 물줄기의 아름다움을 참신한 서정으로 그려내고 있다.

먼저 섬진강의 여러 이름들에 대한 내력을 시적인 표현으로 표출하고 있다. 압록 두 줄기의 물은 ‘흰모래 잔풀들이 뾰뾰한 것이 그림 같고’ 한 줄기는 동으로 흐르는 瀑水驛이 되고, 또 한줄기는 ‘돛단배가 출몰하는 물가에 나무는 푸르니’ 동으로 흐르는 文江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애정 어린 이 고장 시인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섬진강 은어의 청정한 생명력을 후각적인 미감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漢水川과 蟾津의 물줄기를 그려내고 있다. 한수천은 ‘고깃배 소금 배에 기둥이 우뚝 솟았네’라고 하였으며, 섬진은 ‘수진의 피리소리 그치고 서리 맞은 잎이 지네.’라고 하였다. 섬진나루에서 임란 시 일본수군에 쫓기던 우리 병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다방면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간직한 섬진강의 모습을 ‘千里蓴美四腮魚’라고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37) 윤종균, 〈蟾津江〉, 앞의 책, 26쪽.

38) 其源有二 一自鎮安馬耳山發 一自長興熊峙發 合於谷城鴨綠江 東流爲瀑水驛 又東流求禮 南爲文江 又東流爲漢水川 又東流經光陽北蟾津鎮 又東流爲河東斗峙江 斗峙東國方言蟾 謂之蚪鼇 又云蚪鼇 所謂斗峙江 卽蚪鼇江之轉音也.

36) 매천 황현도 「石柱七義閣 二首를 지어 이들의 장렬한 죽음을 기렸으며, 역사의 귀감으로 제시하였다. 황수정, 앞의 논문, 124~125쪽 참조.

어느 한 순간의 詩情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섬진강과 함께 한 삶에서 묻어나오는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당은 이와 같은 작시형태를 즐겨 사용하였다.<sup>39)</sup> 즉 이 고장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기록하며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臺迥秋光集	용대에 가을빛이 모여 빛나고
江空夜氣清	강은 쓸쓸하고 밤기운이 맑네.
踈星垂曠野	드문 별빛이 광야에 드리우고
遙火出孤城	먼 불빛이 외로운 성에 나타나네.
汀艸寒仍綠	물가의 풀은 추위도 겹겹이 푸르고
山楓曉更明	산의 단풍은 새벽에 다시 흰하네.
代謝成今古	앞과 뒤가 서로 고금을 만드는 것
流水本無情	흐르는 물은 본래 무정한 것이네.

〈龍湖秋夜〉<sup>40)</sup>

이 시는 1920년(59세)에 쓴 것으로, 구례 용호정에서의 가을밤을 읊은 것이다. 용호정은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지리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鰲山이 있고 동으로는 철의사가 순절한 석주관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우국에 대한 정이나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술회를 읊은 시인들이 많이 있다. 특히 1917년 창건과 함께 이곳을 중심으로 龍湖亭詩契라는 시사가 이루어졌다.<sup>41)</sup> 이처럼 용호정에서는 활발한 음영활동으로 國恥에 대한 한을 달래며 선현의 유지를 추모하기도 하였다. 유당 또한 용호정과 주변 경관의 어울림 속에 지난 역사의 숨결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미련에 이르기를, '代謝成今古 流水本

無情이라 하여 선현들의 우국에 대한 遺志와 후진들의 항일사상 등이 고금을 이루며 지속되고 있음을 그린 것이다. 이에 앞서 수련에서는 破題, 곧 제목을 풀이하였다. 그래서 용호정 가을밤의 서정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함련과 경련에서는 율시의 대우구조가 격조 있게 이루어지면서 이 시의 미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경련에서는 汀艸와 山楓, 綠와 明 등 시각적 이미지가 선연히 드러나게 하였다. 이처럼 유당은 시 본연의 미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시대의 질곡을 말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인으로서 진솔한 詩情을 드러내면서도 고장의 풍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세심한 관심을 보이며 기록하여 시에 있어 더욱 풍부한 진정성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바가 유당이 시인으로서 지키고자 했던 사명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 4. 맺음말

이 논문은 尹鍾均(1861~1941)의 삶을 조명하고 그의 詩에 담긴 眞情性을 고찰한 것이다. 윤종균의 字는 泰卿이며, 號는 西堂이다. 본관은 해남이다. 전남 순천 서면 당천 마을에서 태어났고, 주로 구례에서 활동한 시인이다. 그는 역사적 격변기에 시대의 변천을 온 몸으로 체감하는 삶을 살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당대 지역 한시인에 대한 부각인 동시에 구한말 우리 한문학 성과에 보다 풍성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문학적 교류를 통한 시대정신과 정서의 소통으로서 유당 한시의 眞情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유당은 평생 詩業을 통해 섬세하고 풍부한 시인식을 갖추었으며, 당대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상을 직시하는 날카로운 시대정신을 갖출 수 있었다. 이는 유당이 당대 문인들과의 從遊와 唱和의 삶을 통해 구축하고 이끌어간 소산일 것이다.

39) 유당의 시 중에 〈燕谷寺〉, 〈泉隱寺〉 〈孝隅橋〉 등 고장의 풍물을 읊은 시에 주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40) 윤종균, 〈龍湖秋夜〉, 앞의 책, 52쪽.

41) 구례문화원, 『龍湖亭詩稿』, 호남문화사, 1996, 14~15쪽 참조.

\_\_\_\_\_, 『용호정시계 규약』, 위의 책, 21~25쪽 참조.

시인의 눈을 통해 그려진 그리움과 서글픔은 바로 인간의 거짓 없는 진실한 감정에 접근시키는 힘이 있다. 유당은 이 고장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기록하며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유당은 시 본연의 미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시대의 질곡을 말하고자 하였다. 즉 시인으로서의 사명의 식으로 진솔한 詩情의 미적 발현과 더불어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세심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풍물에 대한 꼼꼼하고 정확한 기록정신을 발휘하여 시와 더불어 내력이나 특징 등을 부기하였다. 이는 자신의 시적 정서 표출과 더불어 향토애적인 면을 드러낸 것으로, 시에 있어 진정성을 담고자 한 것이다.

#### ■ 참고문헌

##### <자료>

윤종균, 『유당시집』, 명문사, 1968.

황 현, 『매천전집』 전5권,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이건창, 『명미당문집』, 경인문화사, 1995.

김택영, 『김택영전집』, 아세아문화사, 1978.

구례문화원, 『용호정시고』, 호남문화사, 1996.

##### <논저>

구례군지편찬위원회, 『求禮郡誌』 上·中·下, 향지사, 2005.

昇州鄕里誌編纂委員會, 『昇州鄕里誌』, 광주일보출판국, 1986.

이종목, 「일제강점기의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윤종균 저, 진인호·허근 역편, 『譯註 西堂詩集』, 순천문화원, 2003.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백기수, 『미학』, 서울대출판부, 2000.

金正煥, 『梅泉詩派 研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

황수정, 『梅泉 黃玘 詩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투고일 : 2007. 12. 31. 심사일 : 2008. 1. 16. 심사완료일 : 2008. 2. 11.>

〈Abstract〉

## A Study on the Life and Poetry of Yudang Yun Dong-Gyun

Hwang, Su-jeong

This study speculates Yun Dong-Gyun's life (1861~1941) and authenticity in his poetry. His family origin is Haenam. He was born in Dangchon, Seomyeon, Sunchon, Jeonnam and wrote poems mainly in Gurye. He experienced a bitter life in the middle of main historical change. It leads to a highlight of a local poet at that time and will provide more abundance for achievements in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classics in late Joseon period. Therefore, through historical mind and emotional communication for literary communication, we can identify the flow of Chinese poetry at that time exactly. That is, Yudang has delicate and abundant consciousness on poetry by writing for his whole life, and through exchanges with famous literary people at that time, he could have a sharp insight to face up to reality. It is a product obtained through exchanges of the literary people he associated with.

Specifically, his poetry shows love and interest in his hometown delicately and records its natural landscapes exactly and specifically by adding history and features. It is a poetic

representation of the love to his hometown, through which we can identify authenticity of his poetry.

**Key words** : literary communication, history and features, historical mind, authenticity